

“나 좀 쉬게”

‘부상 변수’ KIA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뛴게”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김선빈이 우측 내복사근 미세 손상으로 12일 엔트리에서 탈소됐다.

KIA 김선빈 최소 열흘 결장
서건창·홍중표·박민 등 경쟁



KIA 타이거즈 김선빈이 부상으로 이탈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12일 SSG 랜더스와의 방문 경기를 앞두고 KIA 타이거즈의 엔트리에 변화가 생겼다.

내야수 김선빈이 엔트리에서 탈소됐고, 박민이 풀업됐다.

김선빈은 전날 SSG와의 경기에서 5회초 중전 안타로 출루한 뒤 대주자 홍중표와 교체됐다.

통증을 호소하면서 벤치로 물러났던 김선빈은 인천 송도 플러스 정형외과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 내복사근 미세 손상 소견을 받았다.

엔트리에서 빠진 김선빈은 10일 이후 광주에서 재검진을 할 계획이다.

최소 10일 이상 김선빈의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베테랑 김선빈은 올 시즌 59경기에 나와 198타수 62안타, 타율 0.313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는 동점 투런포를 날리는 등 5개의 홈런과 26타점도 기록했다.

같은 날 바뀐 KIA는 다시 또 부상 변수를 만났다.

KIA는 이의리와 윌 크로우의 연이은 부상으로 마운드 위기를 맞으면서 힘겨운 5월을 보냈고, 결국 지난 7일 굳게 지켜왔던 1위 자리를 LG에 내줬다.

우여곡절 황동하에 이어 캠 알레드로 선발진 새 로테이션을 구성하자마자 이번에는 야수진에서 부상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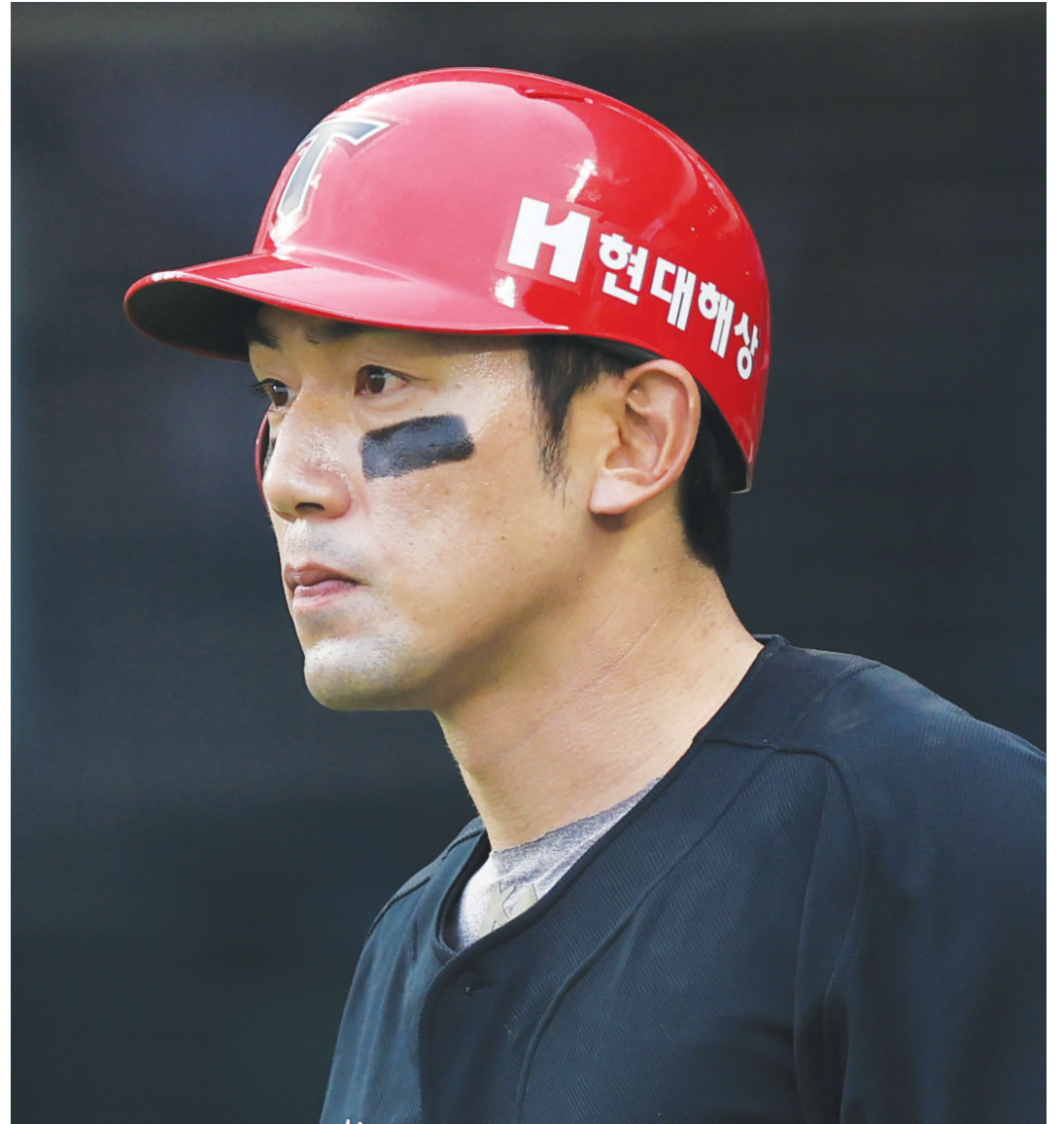
KIA는 서건창의 경험과 홍중표·박민의 ‘경쟁’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김선빈이 부상으로 빠진 12일 서건창이 9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서건창은 산전수전 다 겪은 김선빈과 동갑내기 베테랑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 최근 10경기에서 41타석에 들어선 서건창은 홈런 포함 17개의 안타를 만들면서 0.459의 타율을 기록했다.

부상으로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박민은 또 다른 부상으로 재입장 기회를 얻었다.

지난 4월 7일 박찬호가 사구 여파로 엔트리에서 탈소되면서 박민이 대신 유격수에 자리했다. 박민



김선빈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KIA 서건창이 내야 최고참으로 위기의 팀에 경험을 더하게 된다.

은 이날 삼성과의 경기 이후 9-10일 LG전에서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의 시간은 길지 못했다.

10일 LG와의 홈 경기에서 3루 파울플라이를 쫓던 박민은 관중석에 충돌한 뒤 일어나지 못했다.

박민은 앰블런스에서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왼쪽 무릎 내측 광근 부분 손상 진단을 받으면서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부상에서 회복한 박민은 5월 3일 롯데와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돌아왔지만 새로운 경쟁에 직면했다.

자신의 부상으로 1군에 풀업된 홍중표가 시즌 첫 경기부터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선보였다. 홍중표는 결정적인 호수비로 팀의 승리를 지키는 등 공수에서 활약을 이어가면서 엔트리 한자리를 차지했다.

이번에 또 다른 부상 이탈자가 발생하면서 2024년 입단 동기인 홍중표와 박민이 내야에서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두 선수는 입단부터 기대를 모은 ‘내야 유망주’였다. 아직 확실한 자리가 없는 비스킷 역할의 백업 요원인 데다 2021년 홍중표에 이어 2022년 박민이 나란히 상무야구단에 입단하면서 두 선수는 KIA 유니폼을 입고 1군에서 함께 한 시간이 많지 않다.

부상과 부상의 여파로 두 사람이 모처럼 1군에서 재회했다. 홍중표와 박민이 선의의 경쟁으로 위기의 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재충전 마친 광주FC ‘뜨거운 질주’ 시동

2주간의 A매치 끝...K리그1 재개

‘4골 3도움’ 활약 가브리엘 기대
이정호 감독 ‘전술’도 시선 집중



이정호 감독



가브리엘

2주간의 A매치가 끝나고 K리그1가 다시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건다. 다시 열리는 K리그 그라운드엔 눈길을 끄는 이들이 있다.

올 시즌에도 K리그1에는 ‘무서운 신예’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는 강원FC의 양민혁이다. 2006년 생인 양민혁은 준프로 신분으로 K리그에 데뷔, 16경기 전 경기에서 출전했다. 양민혁은 3월 10일 광주원정에서 프로 데뷔골을 넣는 등 4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라운드 베스트11에 3차례 이름을 올린 양민혁은 4월에 이어 5월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주인공으로도 등극했다.

양민혁과 함께 문민서도 K리그1의 새로운 젊은 피로 꼽힌다.

문민서는 구단 최초로 광주 U12, U15, U18를 모두 거쳐 프로에 뛰어난 ‘성골 유스’다.

3월 31일 4라운드 대구FC와의 홈경기를 통해 프로 데뷔전을 치른 그는 페널티킥 키퍼로 나서 강심장을 과시하며 데뷔골을 장식했다. 이후 모든 경기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그는 13경기 2골의 활약을 펼쳤다.

시즌 첫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인천 유나이티드 박승호도 16라운드 전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프로에 데뷔해 9경기 1골에 만족했던 그는 올 시즌 인천의 순위 싸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는 대구FC의 정재상도 올

시즌 9경기에 나와 2골을 기록하면서 새 얼굴로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선수들의 발끝도 뜨겁다. K리그1 득점, 도움 1위를 외국인 선수들이 장식하고 있다.

득점 선수는 9골을 넣은 인천 무고사, 도움 1위는 7골을 도운 수원FC의 안데르손이 기록하고 있다.

올 시즌 전 경기에서 나온 무고사는 오른발로 4골, 머리로 1골을 기록했다. 페널티킥 키퍼로도 4골을 만들었다. 무고사는 슈팅(44개), 유효슈팅(21개) 순위에서도 가장 높은 곳을 차지했다.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에 첫선을 보인 안데르손은 전 경기에서 출전해 7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새 리그에 완벽하게 적응을 끝냈다.

안데르손은 날카로운 돌파와 크로스를 기회로 만들어 내며 키패스 1위(28개), 공격지역으로 패스 성공 2위(244개)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가브리엘이 ‘히트 샴프’이 됐다.

수원FC와의 개막전에서 K리그 데뷔골을 터트린 그는 3월 10일 강원과의 2라운드 경기에서는 멀티골을 장식했다. 머리, 오른발, 왼발로 두 경기 만에 3골을 장식한 그는 밀리지 않는 몸싸움 실력으로도 팬들의 감탄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상대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되면서 고전하기도 했지만 4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광주의 공격 중심에서 있다.

사령탑에서는 광주 이정호 감독과 대전하나시티즌 황선홍 감독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정호는 감독 데뷔 시즌이었던 2022년 압도적인 질주로 K리그2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광주의 승격을 이끌었고, 지난해에는 ‘정효불’을 앞세워 3위라는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을 이끌었다.

2024시즌을 연승으로 열면서 기대감을 키웠지만 굳건했던 수비가 흔들리면서 6연패와 함께 최하위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거침없는 인터뷰로도 화제의 인물이 됐던 이정호 감독이 2주간의 재충전 시간을 발판 삼아 광주의 뜨거운 질주를 만들어낼지 시선이 쏠린다.

4년 만에 대전 사령탑으로 복귀한 황선홍 감독도 K리그1의 새로운 카워드다. 황선홍 감독은 공교롭게도 15일 오후 6시 ‘진정팀’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K리그 복귀전을 치른다. 포항스틸러스에서 펼쳐질 황선홍, 박태하 두 감독의 ‘절친’ 대결이 17라운드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숨 돌린 축구, 사령탑 선임 모드로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서 중국에 1-0...3차 예선 조편성 유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임시 사령탑’ 체제로 무난하게 넘긴 한국 축구가 본격적으로 정식 사령탑 선임 작업에 들어간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중국전을 끝으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마감했다.

중국을 1-0으로 꺾은 한국은 5승 1무 무패, 승점 16으로 C조 1위를 차지했다. 또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중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유지, 1번 포트에서 3차 예선 조 편성을 받는 유리한 고지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낙마하면서 발생한 사령탑 공백 사태가 새 감독 선임 작업이 늦어지면서 4개월 동안이나 이어졌으나, 대표팀은 2차 예선의 마지막 4경기를 황선홍, 김도훈 감독의 연이은 임시 사령탑 체제로 잘 마무리하며 위기에 서 벗어났다.

한숨 돌린 한국 축구는 2년 남은 북중미 월드컵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첫 단계는 단연 몇 달째 미뤄진 정식 감독 선임이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략강화위원회는 김도훈 감독을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하기 전 제시 마쉬(캐나다 대표팀 부임), 헤수스 카사스(이라크 대표팀 잔류) 감독 등과 접촉했으나 모두 영입이 무산됐다.

전략강화위는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정식 감독 후보군을 추리고 있다.

위원들은 지난 3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새 사령탑에게 요구되는 조건과 향후 선임 절차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다음 회의는 이른바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열릴 거로 보인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유럽 리그가 끝나면서 해외에서 여러 감독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서가 왔다.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전략강화위가 국내 감독도 후보에서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축구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략강화위가 추진 국내의 감독 후보군은 1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3차 예선 1차전은 9월 5일경 치러질 예정이다. 석 달 남았으나 실제로는 시간이 많지는 않다.

연합뉴스